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응답의 시간표"
성경	사도행전 2:1-4
일시	2017년 11월 12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사도행전 2:1-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요약 자료♣

1.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 1) 예수님이 하신 약속(사도행전 1:8)이 성취되었습니다.
 - 2) 세 절기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 3)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47)
2. 중직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 1)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1-7)
 - 2) 성령 인도를 따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26-40)
 - 3) 스테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19)
3. 선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 1) 스테반의 환난이 선교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19-30)
 - 2)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일 년간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1:25-26)
 - 3)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1-4)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지난 주 야외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받은 말씀... 시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붙잡기 바란다. 우리 시작의 첫 시작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결코 죄와 사탄, 지옥의 배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온갖 종교, 선행, 철학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 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 마디에 모든 답이 다 났다. 그 약속을 이루셨던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 성도들이, 모든 램넛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과 체질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 된다. 그렇다면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겠는가? 이 광야의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갱신 되고 치유 되어야 할 시간이다. 비록 아프고 상처가 많지만 그 속에서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참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문제가 더 심할수록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상처가 더 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체험을 하라고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나라"였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 아프고 힘들수록 더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더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누리셔야 된다.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싸움 하셔야 된다.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힘이 온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었던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신앙고백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을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결코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다. 이 때에 오는 응답이 있다. 저는 이 한 주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뭔지 아시는가?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착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아까 우리 황목사님께서 찬송인도 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찬양 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어두웠다. 오히려 그 찬양은 사실은 그런 슬픈 찬양이 아니다. 생명 얻음에 대한 감격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되어졌던 그 찬양인지라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고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 여러분, 찬송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시라. 옛날의 아픔과 상처를 찬송에 담아가고 닢두리 하듯이 찬양하지 마시라. 찬양은 나의 위로를 받고자 부르는 것이 아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비록 나는 아프지만... 그리스도께서 있다면 그게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 할 때 여러분이 진짜 치유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램넛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찬양 할 때 좀 웃으시라. 스마일 하시라. 찬양은 기쁨이다. 기쁨의 표현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든 든든한 것이다. 여러분, 배경이 든든할수록 여러분 어깨를 딱 펴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깨를 딱 피시라. 오기 전까지는 어깨를 축 늘여지고 힘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말이다. 영당이 딱 들고, 힘주고 영당이 양쪽에... 그리고 허리 쪽 펴고, 어깨 단단히 세우고... 요즘 자녀가 자세가 좀 불량하다. 막 집에만 들어오면 누우려고 한다. 이 밥만 먹으려고 하면 웬지 쓰러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세를 교정해 줘야겠더라. 그래가지고 좀 세웠다. 자세교정 할 수 있도록 머리에 위에다 책 한 권을 딱 올

렸다. 그리고 걸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꿈쩍을 못 하더라. 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딱 품을 보여줬다. 머리 위에 책을 올리고서 제가 스트레이트로 곧게 쪽~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것이다. 머리에 책을 딱 올리고 걷기 시작하더라. “다섯 바퀴 돌아와.” 한 바퀴 돌 때는 괜찮았다. 두 바퀴 돌 때도 괜찮았다. 세 바퀴 돌면서 뭔가 좀 자세가 불량하기 시작했다. 다섯 바퀴 다 돌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 그러니까 책에만 신경 쓰지 자세의 교정이 아닌 것이다. 떨어지지 않게 이게 애를 쓰는 것이다. 책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세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구원 받지 않았는가. 이분부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신단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시라.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사단의 어떤 속임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약속 굳게 붙잡으란 말이다. 그 약속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기준이 딱 되셔야 된다. 그 때에 오는 응답이 오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한 번 제가 질문 해 볼 테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시라.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응답의 내용이 뭐가? 그것이 있으신가? 여러분 인생에 최대의 응답이 있으신가? 그게 있으셔야 된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앉아있는데 응답을 모르고 계신다. 지금,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은. 또 최대의 응답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그게 무엇이겠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첫 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말씀이다. 최고의 응답, 최대의 응답이... 나를 구원한 복음이다. 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응답이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최대의 응답이 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 해 주는 교회와의 만남이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복음운동 하는 교회와의 만남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최대의 응답으로 삼으셔야 한다. 제 생애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놓고서는 제 생애를 그려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저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교회. 그게 제가 생존했던 자리이었다. 그래서 저는 ‘최고/최대의 응답은 비록 복음하신 그리스도와 교회다.’ 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 되었다. 역시 세 질기의 언약도 역시 복음의 말씀이었다. ‘유월절’은 ‘구원’을 설명한다. ‘오순절’은 ‘성령의 동행’을 얘기한다.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이게 바로 성취 된 말씀이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다. 이루가 받은 최고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이 약속 잡고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은 교회의 시작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 된 교회였다. 그리고 흩어졌던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던 교회였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기적과 이적이 전부 말씀의 성취가 계속 되는 그런 교회였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이들이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해 일어났다. 그 때에 베드로가 말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그 때에 3천명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때에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다. 경제가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들이 시작된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였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시작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말씀의 운동의 장이 되도록. 여러분의 직장도 지역에서 이 말씀운동이 계속 되도록. 그런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라. 모든 성도의 가정을 복음운동 하는 가정으로 응답 받기를 바란다. 모든 지역과 모든 직업현장이 바로 말씀운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전도/선교운동 속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왔다.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헬라과 과부들과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다. 그 문제가 바로 ‘구제’의 문제였다. 이 구제의 문제를 감당하려고 사도들이 애를 썼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다. 아... 구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구제하는 일을 맡을 사람들을 찾았다. 교회 안에 직분의 유래이다. 시작이다. 지금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 권사, 집사, 각 제직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저는 우리 중직자나 모든 우리 제직자 되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사람들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여러분의 모델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델 되었던 성도 중에 한 성도가 누구였나 하면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었다. 이 스테반이라는 집사님 앞에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다. 믿음이 보였고 성령의 충만함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스테반이었다. 이 분은 사도행전 7장에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에 외쳤던 복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이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다. 적어도 중직자라면 적어도 중직이기 이전에 ‘나의 신앙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셔야 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했던 그 중심에 희생의 피의 주인공의 비밀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속국으로 붙잡혀 있을 때 빠져 나왔던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스테반 집사님을 알고 있었다. 그 복음 가지고 집사님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다. 또 한 집사님이 계신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역시 똑 같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의 사역이 잠깐 나온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로 가라.”라고. 그 때에 빌립은 아무 말 안 했다. 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데요?” “거긴 광야인데요.” “거기엔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시간낭비 하려고 하십니까?” 절대 묻거나 결과를 논하지 않았다. 그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갔다. 갔는데 그 광야에 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마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사야 53장은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 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을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다. 근데 빌립집사님이 그 마차 곁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묻는다. “읽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계시나?” 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기에서 바로 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 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빌립이 가르쳐 주었다. “그럼 어떻게 죄인 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그 비밀을, 복음을 설명해 줬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지배와 이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 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빌립이 제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빌립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했던 것이다. 이 빌립집사님도 역시 ‘나만의 복음’이 정리 됐

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적어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준비 되어야 될 내용이 이것이다. 직분이 먼저가 아니다.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니다. 나만의 분명한 신앙고백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스테반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중직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흩어진 그 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는가? “주 예수를 전파했다.”그런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앞에서 일하는 중직자일수록 바른 복음이 정리되어야겠구나.’ 또 하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중직자일수록 바른 나만의 메시지가 준비 되어있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말씀이 왜 현장에는 계속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는 말이다. 열매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수고도 해야 된다. 땅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씨도 뿌려야 된다. 그리고 물도 줘야 된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바로 여기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했는가?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도 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아침 그런 기도를 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준비를 많이 해 온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가? 아! 수고는 했지만 안 자라게 한 뭔가가 있단 말이다. 아... 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라나지 못 하게 하는 뭔가가 있구나. 결국은 내 수고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수고를 복되게 하셔서 이들이 자라나야 정상 아닌가? 한 번 생각해보시라. 아기를 키우는데, 내가 아기를 위해서 젖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샤워도 시키고, 머리도 감기고, 다 수고하는데... 아이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일 년이 되도 안 크다. 어떻게 된 것인가? 수고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준다고 해서 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복 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축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아! 내가 아무리 큰소리 치고,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전무하는 것과 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분명히 언약이 있죠? 언약이 분명히 맞다면... 여러분, 이제 하시라. 기도를 시작하시라.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상자를 복 주시도록. 여러분 가정에 그 말씀이 복 되도록.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된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하셨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 되는 말씀이 아니다. 성도, 중직자, 램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언약 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세 번째 응답’이 있다. 그 응답이 바로 ‘선교의 응답’이다. 저는 정말 사도행전 11절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감격이 됐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따왔다. 이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교회. 이 스테반으로 인해 흩어졌던 이들이 전

했던 이 복음은 유대인만 전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바로 선교의 시작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였다. 저는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이 복음을 우리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는구나.’ 그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그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그게 교회의 분위기였다.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도 보였던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에 그런 것이 보여야 된다.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구나.’ ‘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누구에게서 보여야 되겠는가? 메시지 하는 목사에게서도 물론 나타나야 되겠지만 일 하시는 중직자들의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 램넌트들이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아빠의 얼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함께하시!’ ‘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것을 성도들에게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는가? 안 떠난다. 엄마, 아빠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교회에 가봐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아이들은 실망한다. 집에서 힘 빠지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본다면 절대 떠날 수 없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재미가 있을까?’ 혹시 밖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역사를 본 램넌트가 밖에 나갔다가 ‘없음’ 알게 된다.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된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도가 왔다. 사도 바나바가 와 보니까... 놀라운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 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계속 되는 응답과 축복을 바나바로서는 감당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멀리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로 되었던 사울/바울을 찾아간 것이다. 이 바울을 불러다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 저는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 혼자 목회하지... 바울을 불러다가 사역을 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기도제목 잡은 것이 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도 다였구나.’ ‘그리스도만 준귀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중요하지 않구나. 자신은.’ 그래서 바울을 불러들인 것이다. 참 멋진 사역자의 모습을 저는 봤다. ‘아! 이런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일에, 교회가 존귀되어지는 일에, 그리고 복음만 전파되는 일에 내가 헌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와도 괜찮구나.’ 그렇게 일 년간을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훈련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증거가 나타났다. 그리고 불신자로부터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별명이 하나 붙었다. 안디옥교회 성도와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로 보여졌던 것이다.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여러분, 어떠신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들어나고 있는가? ‘아... 바로 안디옥교회가 이랬었구나.’

더 한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13절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선지자들은 누구겠는가? 바로 탁월한, 아주 월등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

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다. 교회가 든든할 수밖에 없었다. ‘아! 바로 이게 안디옥교회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졌다. 그래서 세월이 잠시 지나 이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왜? 교회는 말씀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교회는 말씀이 세워야 된다. 그 일에 수고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을 뿐이다. 더 제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됐다. ‘이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구나.’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었다. 우리만의 목회자가 아니었다. 복음이 필요하다면 마음껏 사람을 보내고 파송할 수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복음의 교훈,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요람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이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받을 교회의 응답이다.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파송한 그 교회를 후원할 만큼... 여러분이 얼마큼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는가? 그냥... 내 먹고 사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 이런 응답 못 받는다. 진짜, 여러분, 2017년도 기도제목 분명히 정리하고 2018년도로 넘어가시라. ‘하나님, 우리가정을 축복하사 우리 가정의 경제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릴 정도의 경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한 교회를 후원할 만큼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과 축복의 주역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런 응답 받도록 기도하시라. 진짜 선교의 응답 받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하다.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어떤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가? 갈보리산의 언약 - 그리스도, 감람산의 언약 - 하나님의 나라,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 - 성령의 비밀이 있으셔야 된다.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오는 응답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딱~중심이 되셔야 된다. 이것은 약속이다.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하는 것이 있다. 뭘 해야 되는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기다리면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오는가? 응답과 함께 도전할 것이 보인다. 그 때 도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찾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전하라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2018년도에 그런 도전에 시작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마치겠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최대의 응답은 성취될 말씀과 교회의 축복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구원의 말씀과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다시... 복음과 복음 말해주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자 세워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안디옥교회의 만남이 저에게는 인생의 최고/최대의 축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에게는 응답이다.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축복이다. 렘넌트 하나가 귀하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다. 그러니 제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 할 수밖에 없다. 그 때마다 제 가슴이 막 감격이 된다. 솔직히. ‘와~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만나 귀한 성도들을 섬기며,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도록 헌신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구나.’ 저에게만 있는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는가? 있다. 여러분에게서 저는 그것을 봤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음을 알았고, 교회 소중함과 사랑함을 전 봤다. 절대 안 흔들리시더라. 또 하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의 직분 이전에 ‘나만의 메시지’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이 있다. 자... 스테반 얘기하면 어디를 꼭 아셔야 되겠는가? 스테반이 자신의 신앙고백을 정리했던 성경이 있다.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사도행전 7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사도행전 7장을 한 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또 하나, 빌립 집사님이 붙잡았던 언약과 내용이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과 사도행전 8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야 53장과 사도행전 8장을 꼭 읽어보시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직자, 혹은 제직자 여러분은 반드시 사도행전 11장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분들은 다 직분 이전에 언약과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게 정리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 교회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교회일 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일 안하셔도 하나님이 일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으시다. 여러분은 먼저 은혜부터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됐다.’ 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꼭 붙잡아야 될 기도제목이다. 안디옥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가? 바로 선교의 응답을 받았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현상이 선교와 전도의 응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런 기준과 언약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제목 정리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로써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제목 정리하시라. 그렇다면 나의 가정과, 학생은 학교에서와 또 직장인은 산업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기도제목을 정리하시라.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2018년도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부 목사 : 이 응남 목사 연 락 처: (832)858-4885, (281)815-5361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